

2024학년도 용현초등학교

효행을 실천하는

3학년 7반





부모님께 편지쓰기

김가을, 김리안, 김민정, 김준서,
김태호, 양진율, 윤수현, 이권현,
이예원, 정소윤, 홍시후



효행 만화 그리기

김민재, 김채은, 신유승, 최재원



부모님 그리기

김윤서, 김윤희, 박소민, 송민호,
안선진, 안현진, 이유주, 이은성,
최유준, 황인우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가을)

♥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 엄마아빠의 첫째 딸 가을
이예요!

저는 엄마아빠의 딸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많은 곳에 데리고 가주셔서

저는 정말 재미 있고 신나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곳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요리를 먹을 때 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는 저 공부할 때 옆에 지켜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요.

엄마랑 아버지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엄마는 저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가 행복

하게 태어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세요! 파이팅!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가을 올림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리안)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이자 막내인 엄마아빠 딸 김리안이에요! 제가 수학을 어려워 할 때 항상 "엄마는 많은 거 안바래.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 라고 말해 주셔서 힘이 되고 수학이해도 잘 되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아빠는 직업이 멋져요! 리액션도 잘해줘요. 아빠는 직업도 멋지고, 웃겨서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아빠 같아요! 이렇게 모든게 완벽해서 자랑스러워요! 항상 작은 소중한 일들도 다 작은 도움이 되요! 엄마아빠를 모두께 다 완벽하세요! 가끔 힘들고 화날땐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아빠가 자랑스럽고, 힘든일도 잘이겨내셔서 존경스러워요. 완전 날개만 떨어진 천사 같아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언제나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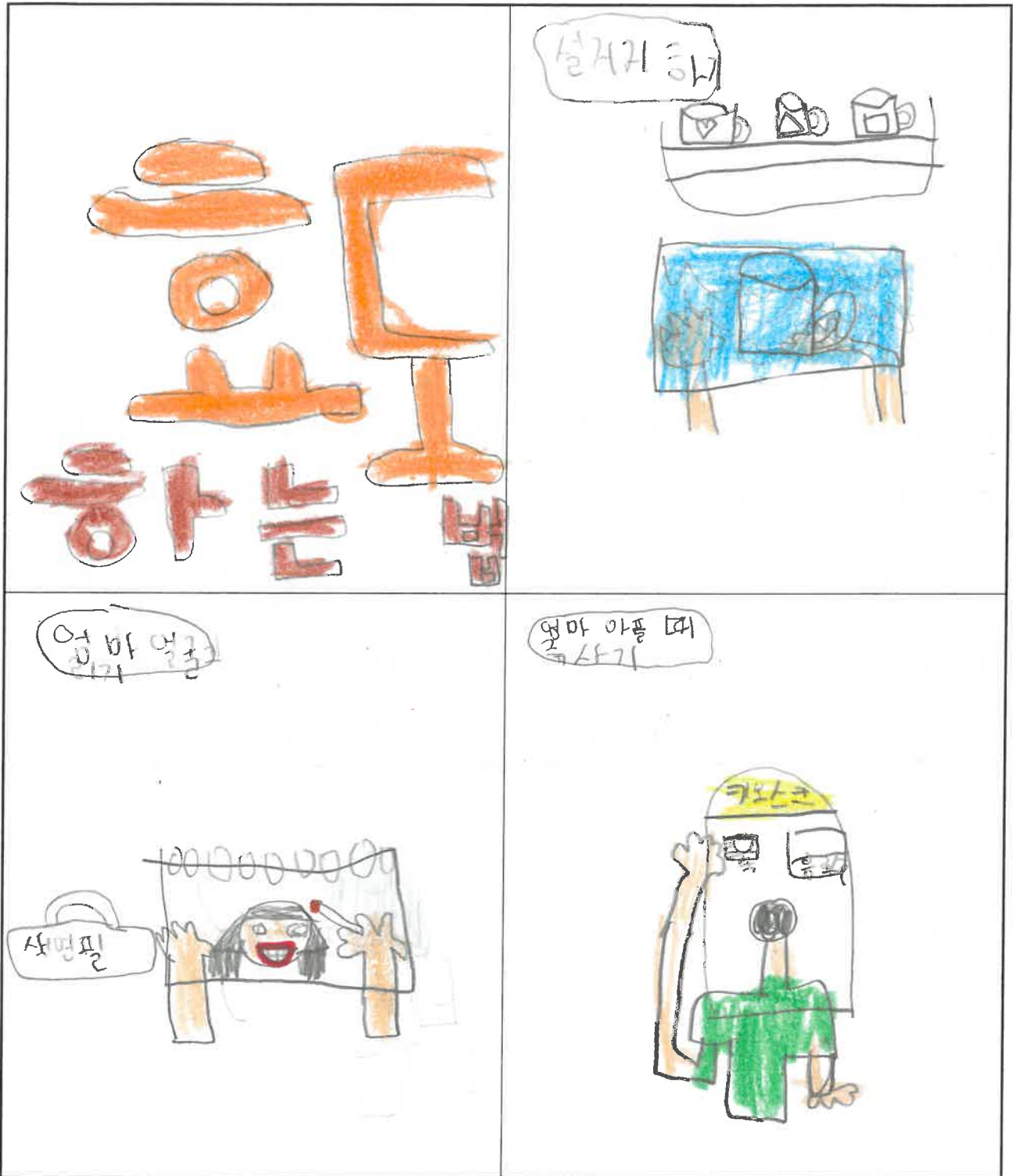
2024. 9. 25. 수요일

- 리안 올림

♥ 호도는 이렇게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민서)

♥ 우리가 할 수 있는 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만화로 꾸며 봅시다.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민정)

♥ 사랑하는 부모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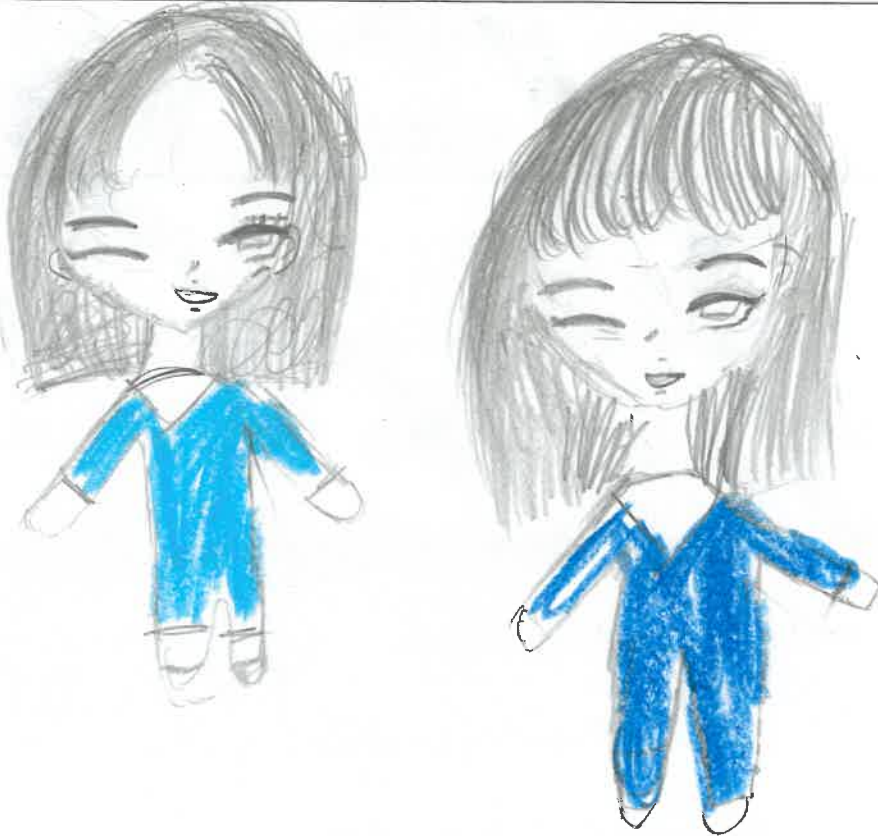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얼굴로
봐서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부모님께 너무 짜증
부리거나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뭐
때문에 행복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쉬는날 때 제가
엄마 자고 있을 때 동생방, 거실, 내방까지 청소할 때
부모님에 미소가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독서록 글씨 잘
썼을 때 그 미소를 기억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짜증
내거나 울고 동생이랑 싸울 때 그 부모님에 미소가 점점
점 사라지고 있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미소를
찾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화낼 때
저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너무 심해서 너
려무너무 죄송하고! 이제부터 저도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있
는 딸이 되어 볼게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 미소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 울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빌게요! 그리고 부모
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민정올림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원서)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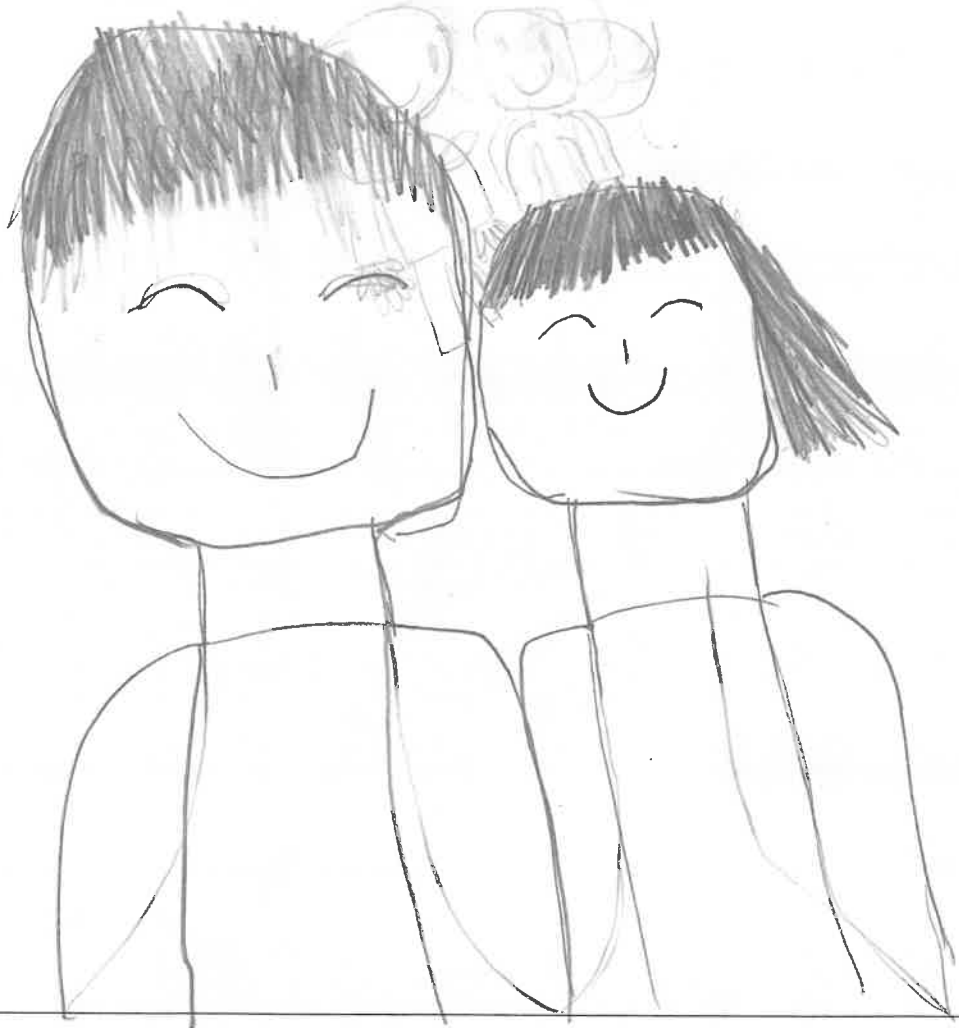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주
을 때 감사했어요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윤호)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생일 선물 감사함
C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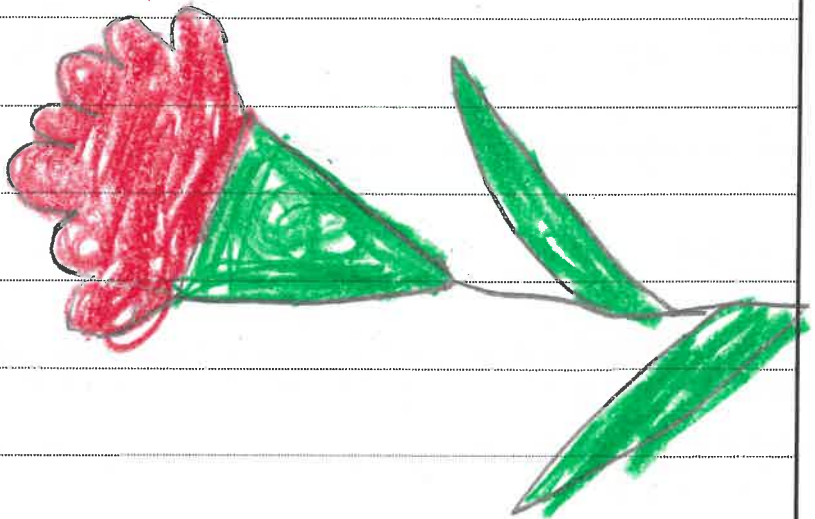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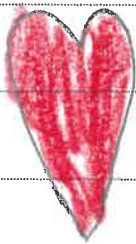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준서)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김준서입니다. 키워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제 뽀뽀할 때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피규어
사준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룡
장난감 사준 게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
다. 사랑해요.



♥ 호도는 이렇게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채은)

♥ 우리가 할 수 있는 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만화로 꾸며 봅시다.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김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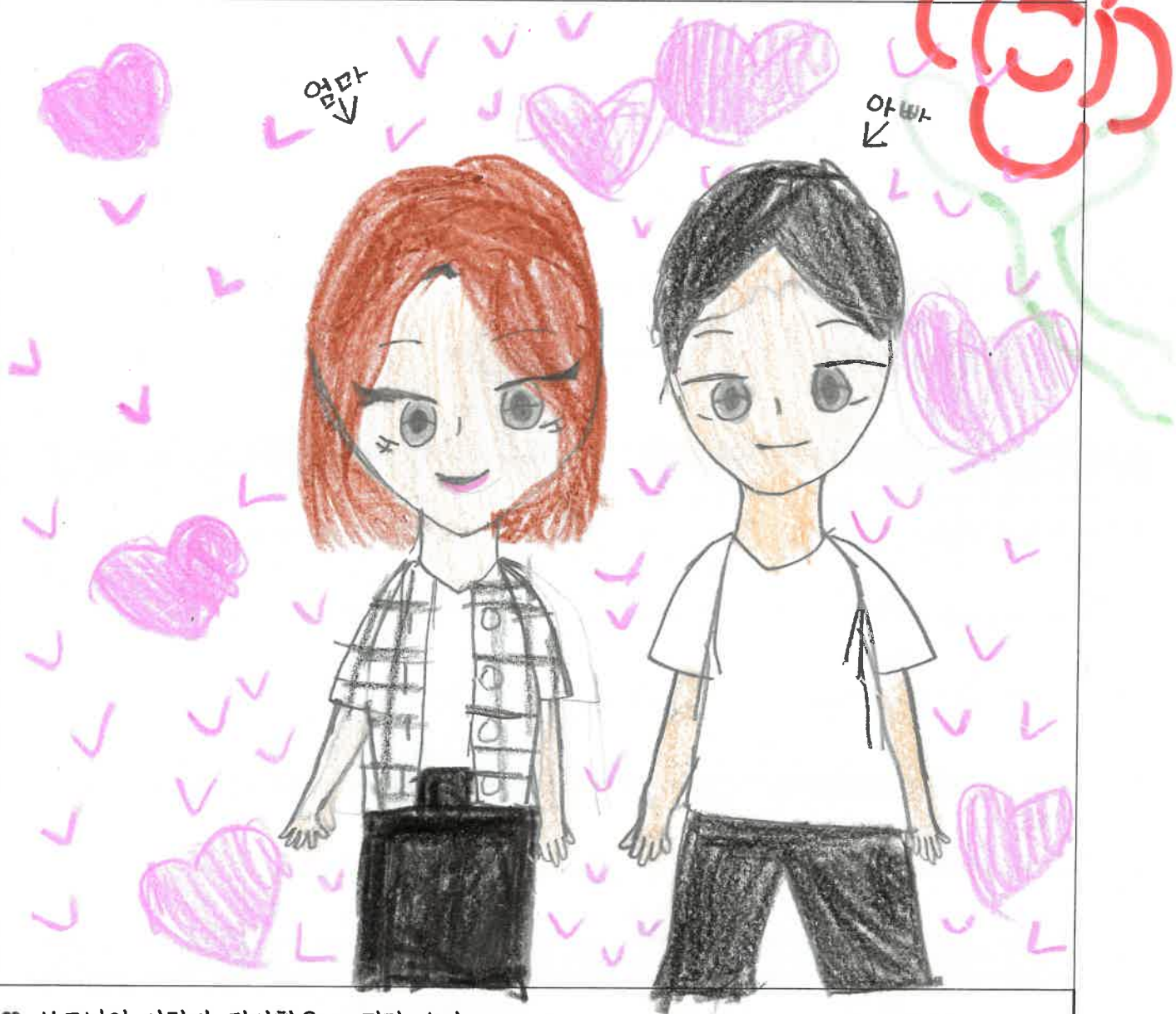
♥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박소연)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엄마와아빠가 나 때문에 일을 힘들게일라고 그래서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힘들게 중국한국을 갔다와서 너무
힘들고 엄마지금도 일을 열심히하는데 더 열심히노력해서 학원
비런해서 감동이였습니다. 엄마,아빠 사랑해!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송민호)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부모님이 내가 모르는 공부를 알려 주시고 야근에 친구
하길 때 나에게 인사할 때 사랑이 느껴졌어



♥ 호도는 이렇게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신유승)

♥ 우리가 할 수 있는 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만화로 꾸며 봅시다.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안 선 진)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
 셔줘요. 대♥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안현진)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 부모님에게 편지를 줬을 때
- 엄마 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주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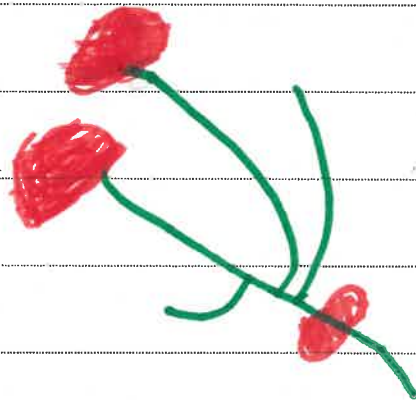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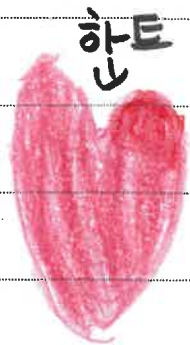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양진율)

♥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딸 진율
이에요! 엄마가 맨날 나 아플때, 어디가고싶다고
했을 때 같이 가주고 그리고 나 아플때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
성도 피우고 엄마말도 안듣고 엄마가
다리 아플때,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엄마 다
날 때까지 내가 엄마! 챙겨줄게요! 그리고
엄마 나 언제 엄마, 나랑 같이 다이소
같이 가니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소 또 가면 행복했던 시간이
또 돼자! 엄마! 그리고 편의점, 우리감쪽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9월 25일 수요일
-진율음랑-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윤수현)

♥ 사랑하는 부모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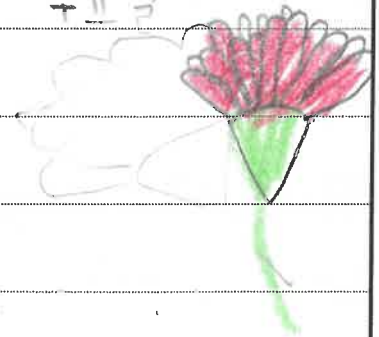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 수현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보았어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태어나게 해주어서 감사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어린이 집에 다닐 때요 그때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 장난치지만
사랑해요. 속속 자라는 동안 제일 가장
행복했을 때가 우리 가족이 모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윤수현 올림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이권형)

♥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엄마 아바안녕하세요, 엄마 아바의 아들 권형이에요.

엄마 저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봐 주시고 맛있는 음식 사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ㅠㅠ

엄마 저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저가 다 쳤을 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바 저를 위해 일을 해서 용돈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바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세요.

엄마 아바 사랑해요

2024. 9. 25

권형 올림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이예원)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아바바!

아바바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

얼마나 보고 싶었는 데요!

오늘이면 보지만 그래도 저에겐

너무 긴 날들이었어요.

할머니와 같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어젯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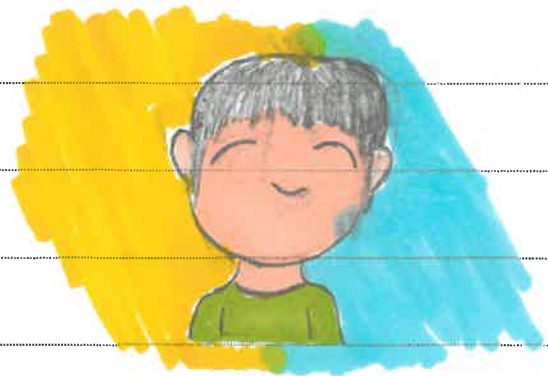
예수님이야기를 할머니와 흥분했어요.

예수님과 12제자 정말 재미 있었어요.

오시면 이야기 해 드릴게요. 아바바!

사랑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2024.09.25



- 예원 올림 -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이유진)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건 해줄려고 노력할 때
내가 울때 안아주고 달래줄 때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이은성)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제가 모든 특이사항과 삼국살라권 일랑 산수생일
때 감사했어요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정수민)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ㅎㅎ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건 오랜만이네요. ㅎㅎ 이렇게 편지로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 ! 요즘 제가 편지를 자주 쓰지 않아서 이번 편지에 더 공 들였습니다 ! ♥ 항상 좀 무뎡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 진짜 마음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사춘기가 올 때 무뎡뎡하고 까칠할 지라도 마음은 항상 '미안하고 사랑해요' 라는 말을 꼭! 꼭! 기억해 주세요!! ♥♥ 제가 늘 그런 마음입니다 ! 편지를 쓰는 지금도 사랑해요 라는 말을 꼭!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라는 걸 생각할 때면 눈물이 조금 글썽글썽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사랑한다 말 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 날짜: 4월 25일 쓰는 사람: 하나

사랑에 없는 딸 정수민 올림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권유준)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부모님과 같이 보드 게임, 놀기 이런것을 할 때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것을 느꼈다.



♥ 호도는 이렇게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조재민)

♥ 우리가 할 수 있는 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만화로 꾸며 봅시다.



♥ 부모님 감사합니다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홍시루)

♥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들 시루 이예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잘 해주셔서
편지 적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매일 매일 요리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매일 매일 힘들게 집안일 하시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성인이
되게요. 형이랑 누나랑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낼게요. 어머니께서 너무 편찮으신 것 같아서
자기 전에 꼭 어깨 주무를게요. 아버지께서
제가 힘든 것도 같이 해주시는게 정말 감사해요.
두 분께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름 시루 올림

♥ 부모님 그리기 ♥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7)반 이름(홍성민)

♥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

몇몇 저에게 사랑해주시고 예쁜 아르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라게 해주시고
 사랑방음이 받고 태어나게 해주신
 순간입니다.

